

【논 문】

1910년대 남만주 독립군 기지 건설과 신흥무관학교*

—안동유림의 남만주 이주와 이상룡·김동삼의 활동을 중심으로

장 세 윤**

┌ 차 례 ─┐

- I. 머리말
- II. 신민회의 독립군기지 건설과 안동 유림의 남만주 이주
- III. 남만주 신흥강습소의 건설과 안동 유림
- IV.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졸업생·교관·김구·일제의 인식
- V. 신흥무관학교와 김대탁·이상룡·김동삼의 활동
- VI. 맺음말

— 국문초록 —

본고는 기존 연구성과와 일부 새로운 자료를 활용하여 구국계몽운동 단체인 신민회(新民會)의 만주 독립군기지 건설 및 인재양성 방략과 신흥무관학교와의 관계, 그에 따른 경북 안동 지역 출신 지도자들의 신흥무관학교를 중심으로 한 단체들의 활동을 검토, 분석코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학계에서 이시영·이회영 등 경주 이씨 가문과 기호(畿湖)지역 관련인물의 기여와 활동 내용은 비교적 널리 연구한 반면, 경북(안동)출신 인사들의 관련 활동은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나름대로 극복해보고자 하였다. 검토 결과 그동안 학계와 국민 일반이 잘 몰랐던 『독립신문』 기사를 통해 신민회를 주도했던 안창호(安昌浩)의 인재양성 전략 방침과 안동혁신 유림의 경험 등이 활용되어 신흥무관학교가 설립,

* 이 논문은 2014년 6월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개최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동북아역사재단.

운영된 사실을 새롭게 확인하였다. 그리고 양기탁(梁起鐸)이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1916년 경 이 학교와 주변지역 한인 독립운동 세력의 희망찬 모습과 독립군기지 건설, 독립전쟁의 구체적 실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최근 번역 발간된 김대락·이상룡의 일기와 유고(遺稿)를 통해 1910년대 남만주 서간도(西間島) 지역으로 이주하여 신흥무관학교와 관련 단체를 이끌며 고군부투하던 안동출신 혁신유림 계열 인사들의 주도적 활동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1910년대 한인 이주사와 한중관계의 한 단면을 새롭게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인 김학규(金學奎)와 교관 김경천(金擎天),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영도하였던 김구(金九) 주석의 이 학교에 대한 인식을 검토한 결과 이 학교가 1919년 전성기 때에는 4곳에 본교와 분교를 두어 2,000여명의 학생이 있었으며, '독립전쟁'에 적극 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제 신흥무관학교를 중국동북지역, 즉 만주 지역사 연구 차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국·일본·한국과 러시아, 미국·영국 등 열강과 국제관계의 교차점으로서의 중국 동북지역·남만주·서간도라는 복합적, 학제적 관점에서의 심층적 연구가 절실하다.

주제어: 신민회, 남만주, 독립군기지, 안동 유림, 김대락, 이상룡, 김동삼, 신흥무관학교, 독립전쟁

I. 머리말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기 중국 동북지역(만주)으로 이주한 우리 선조들은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억척스럽게 살아가면서도 조국과 민족을 위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치열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흥무관학교(신흥강습소, 신흥학교 등)와¹⁾ 북간도(중국 연변)의 북로군정서 사관연성소, 東林무관학교(일명 羅子溝사관학교) 등을 통한 인재양성,

1) 일반적으로 '신흥무관학교'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설립 당시 명칭은 '신흥학교(新興塾)'였으며, '신흥강습소', '신흥중학', 또 일부 자료에는 大東중학교, 養成중학교로 불리기도 했다. 사실 일본 당국의 감시와 중국 지방정권 당국의 견제로 신흥무관학교라는 명칭은 공식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했다. 다만 여기서는 '신흥강습소'와 '신흥학교'를 사용하되, 관례적으로 사용된 '신흥무관학교'도 쓰기로 한다.

서로군정서와 대한통의부, 간도국민회와 대한독립군, 정의부·참의부·신민부 등 민족자치 및 독립운동을 총괄하는 여러 기관의 활동 등은 매우 유명하다. 1920년대 초반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 등은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거둔 독립군의 승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신흥무관학교와 金大洛(1845~1914)·李相龍(1858~1932)·金東三(1878~1937) 등 안동 출신 주요 인사들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동북지역(만주) 독립운동에서 신흥무관학교의 위상과 역할은 지대하였으므로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1910~1920년대 만주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한 一松 김동삼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는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하다. 1993년 발표된 이동언의 논문 이후 연구성과가 거의 없다가 근래에야 김희곤(2009), 김병기(2012) 등에 의해 김동삼에 대한 단행본이 출간되었다.²⁾ 하지만 좀더 심층적 연구와 자료수집, 현지 조사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안동대학(김희곤 교수)과 안동독립운동기념관, 안동시 당국에 의해 안동시(군)나 안동출신 인사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³⁾ 또 최근 안동출신 유림 김대락·이상룡 등 명망가의 문집과 일기가 번역되어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⁴⁾ 그러나 한국독립운동 영역에서 나아가 좀더 다양한 시각에서의 연구와 자료정리, 폭넓은 관점에서의 분석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시각에서 조동걸의 안동유림 渡滿경위와 義城 金氏 문중 독립운동 사례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⁵⁾

2) 이동언, 1993, 『一松 金東三 研究 - 국내와 망명 초기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김희곤, 2009, 『만주별 호랑이 김동삼』, 지식산업사 ; 김병기, 2012, 『만주지역 독립운동의 주역 김동삼』, 역사공간 참조.

3) 김희곤, 1999, 『안동의 독립운동사』, 안동시 ; 김희곤, 2001, 『안동 독립운동가 700인』, 안동시 ; 김희곤, 2007, 『안동 사람들의 항일투쟁』, 지식산업사 ; 한국국학진흥원 편, 2007, 『안동문화의 수월성과 종합성』, 안동시 ; 김희곤, 2011, 『안동사람들이 만주에서 펼친 항일투쟁』, 지식산업사 ; 김희곤, 2011, 『안동 독립운동 인물사전』, 선인 ;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2013, 『경북독립운동사』 4(국외지역 항일투쟁), 경상북도 ; 강윤정, 2013, 『사적(史蹟)에서 만나는 안동독립운동』, 지식산업사 등을 찾아볼 수 있다.

4)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2008, 『國譯 石洲遺稿』 상·하, 경인문화사 ;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2011, 『국역 백하일기』, 경인문화사.

본고에서 간단히 검토하려는 이상룡·김동삼 등 안동 혁신유림계 인사들의 만주(중국동북)지역 독립운동, 특히 신흥무관학교 관련 연구는 일찍이 이현희, 박환, 서중석 등에 의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⁶⁾ 또 2011년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을 계기로 기념학술회의가 매년 열리고, 학술지의 특집 논문도 발표되어 주목을 끌었다.⁷⁾ 최근 대한민국 육군과 육군사관학교의 前史를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면서 ‘신흥무관학교’는 더욱 주목을 받는 주제가 되고 있다.⁸⁾ 최근 신흥무관학교와 경북 안동출신 인사들의 활동을 조명한 논고도 발표되어 이 학교 설립과 운영주체의 한 축인 안동 유림계열의 활동이 규명되었다.⁹⁾ 한편 안동출신 김동삼이 크게 활약한 大韓統義府 관련 연구는 박결순의 연구가 거의 유일한 실정이다.¹⁰⁾ 앞

-
- 5) 조동걸, 1989, 『安東儒林의 渡滿經緯와 독립운동 상의 성향』, 『한국민족주의의 성립과 독립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 조동걸, 2000, 『전통명가의 근대적 변용과 독립운동 사례 — 안동 川前문중의 경우』, 『대동문화연구』 3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 6) 이현희, 1989, 『신흥무관학교 연구』, 『동양학』 19,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 박환, 1991, 『만주지역의 신흥무관학교』, 『만주한인 민족운동사 연구』, 일조각 ; 박환, 2014,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새로운 사료와 졸업생들의 민족운동』, 『만주지역 한인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 서중석, 2000, 『청산리전쟁 독립군의 배경 : 신흥무관학교와 백서농장에서의 독립군 양성』, 『한국사연구』 111, 한국사연구회 ; 서중석, 2001, 『후기 新興武官學校』, 『역사학보』 169, 역사학회 ; 서중석, 2001,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 서중석, 2002, 『이회영의 교육운동과 독립군 양성』, 『나라사랑』 104, 외솔회 등이 있다. 학교 당사자의 회고록으로는 元秉常, 1976, 『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사자료집』 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가 중요하다.
- 7) 『신흥무관학교와 항일무장독립운동』(신흥무관학교 100주년기념 학술회의 발표자료집), 신흥무관학교 100주년기념사업회, 2011 ; 『신흥무관학교, 어떤 인물들이 참여했나』(2012) ; 『성재 이시영선생 60주기 추모 학술회의』(2013) ; 『신흥무관학교와 독립군』(2014) ; 『신흥무관학교와 대한민국 임시정부』(2015) 등의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학술지 특집논문으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발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0(2011.12)에 김주용, 『《신흥교우보》를 통해 본 신흥무관학교』; 김태국, 『신흥무관학교와 서간도 한인사회의 지원과 역할』; 한시준, 『신흥무관학교와 한국독립운동』이 게재되었다.
- 8) 최근 연구성과로 장세운, 2010, 『新興校友團의 기관지 《新興校友報》(자료소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한시준, 2013, 『신흥무관학교와尹琦燮』, 『한국근현대사연구』 67, 한국근현대사학회 ; 박성순, 2017, 『1910년대 신흥무관학교 학생모집의 경로와 거점』, 『한국근현대사연구』 82 등 참조. 특히 육군사관학교는 2017년 12월 11일 『독립군·광복군의 독립전쟁과 육군의 역사』라는 특별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관심을 끌었다.
- 9) 강윤정, 2012, 『신흥무관학교와 안동인』, 『신흥무관학교, 어떤 인물들이 참여했나』(신흥무관학교 101주년기념 학술회의 발표자료집),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으로도 두 단체에 대한 연구는 더욱 심화되어야 하겠다. 추후 중국측 자료를 발굴, 수집하고 현지 활동지역을 정밀하게 답사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심층적 연구는 후일을 기약하면서 기존 연구성과와 일부 새로운 자료를 활용하여 新民會와 安昌浩의 독립군기지 건설 및 인재양성 방략과 신흥무관학교와의 관계, 그에 따른 안동 지역 출신 지도자들의 신흥무관학교를 중심으로 한 단체들의 활동을 간략히 검토,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가 결성된 이후 이시영·이회영 등 경주 이씨 가문과 기호지역 관련인물의 기여와 활동 내용은 비교적 널리 조명된 반면, 경북(안동)출신 인사들의 관련 활동은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나름대로 극복해보고자 한다.

II. 신민회의 독립군기지 건설과 안동 유림의 남만주 이주

신민회는 1907년 4월 경 안창호의 주창으로 梁起鐸·全德基·이동휘·이동녕·李甲·유동열(柳東說)·안창호 등 7인이 창건위원이 되고, 盧伯麟·李昇薰·安泰國·李始榮·이회영·이상재·尹致昊·李剛·曹成煥·김구·신채호·李鍾浩·朱鎮洙 등이 중심이 되어 창립되었다. 신민회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공화주의 이념을 지향하는 비밀조직이었는데,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는 위기상황에서 교육구국운동, 애국계몽 강연·학회활동, 출판운동, 민족산업 진흥운동, 청년운동 등을 전개하여 기울어가는 국권을 회복하려 하였다.¹¹⁾

10) 박결순, 1990, 『大韓統義府 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11) 신용하, 1985, 『신민회의 창건과 그 국권회복운동』, 『한국민족 독립운동사연구』, 을유문화사, 17-24쪽. 다만 윤경로는 신민회 창건 시기를 1907년 10월부터 1908년 1월경으로 파악하고 있다(윤경로, 2012, 『105인사건과 신민회 연구』(개정증보판), 한성대학교 출판부, 307쪽). 윤경로는 공화주의를 표방한 신민회에 이동휘 등 현직 관료가 참석할 수 있었던 지에 대해 회의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특히 신민회는 일본 침략세력이 대한제국의 군대해산을 강행한 직후인 1907년 8월 해외 독립군 기지 개척과 독립군 창건 문제를 최초로 검토하였다. 이후 신민회가 이러한 방침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시기는 의병전쟁이 쇠퇴기에 접어들어 1909년 봄이었다. 이때 신민회는 서울의 梁起鐸 집에서 전국 간부회의를 열고 만주·연해주 등 해외에 적당한 후보지를 골라 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여 강력한 독립군을 양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실천되기 전에 일본 침략의 전초 한국통감부는 1909년 10월 말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처단 직후에 안창호·이동휘·유동열·이종호·김희선(金義善) 등 다수의 신민회 간부들을 구속하였다가 이듬해 2월에 석방하였다. 이에 신민회는 1910년 3월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독립전쟁 전략'을 채택하고, 해외에 무관학교 설립과 독립군기지 창건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¹²⁾ 주목되는 사실은 일제 당국은 1911년 7월 이후부터 신민회를 '무장암살단체'로 규정하여 매우 위협시하게 되었다.¹³⁾

'독립전쟁론'은 1900년대 초의 구국계몽운동 및 항일 의병전쟁의 이념과 논리가 합치하여 발전한 새로운 독립운동 방략과 논리였다. 즉 일본 침략세력으로부터 민족해방과 조국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적당할 시기에 일본 침략세력과 독립전쟁을 결행하는 것이라는 독립운동의 이론체계였다. 독립전쟁론의 첫 실천방안이 바로 국외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는 일이었다. 이에 따라 주요 명망가들을 중심으로 집단적 이주가 구상되어 실천되었다.¹⁴⁾

1910~1911년의 '안악사건(일명 安明根 사건)'과 '테라우치(寺內正毅) 조선총

12) 최근 윤경로는 국내학계의 기존 신민회 연구성과가 다소 과장되어 있다는 비판적 입장을 개선하는 저서를 간행하여 주목된다. 그는 신민회 창건 시기를 1907년으로 볼 수 있지만, 정확히 특정할 수 없고 전체 회원도 300명을 넘지 않았으며, 신민회의 조직체계와 규모, 활동 내용도 일제 당국에 의해 부풀려 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일제가 과장왜곡한 '만들어진 신민회'와 '실제 신민회'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윤경로, 2012, 위의 책, 473~481쪽 참조).

13) 윤경로, 위의 책

14) 신용하, 1985, 앞의 논문, 100-106쪽 및 윤병석, 1990, 『독립군사』, 지식산업사 참조.

독 암살음모사건(일명 105인사건) 등 조선총독부 당국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신민회 계열 주요 인사들은 1911년 봄 남만주 柳河縣 三源堡에 자치조직인 耕學社와 新韓民村을 건설하고 6월에 鄒家街에서 '新興講習所'를 세우는 데 성공하였다. 이곳에서 이시영·이석영·이회영 일가와 이동녕·양기탁, 이상룡·허위·김대락 일가 등이 가산을 정리하고 집단으로 이주하여 韓人 마을과 독립군 기지를 개척, 건설하였다. 신흥강습소는 뒤에 '신흥무관학교'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학교는 많은 독립운동 인재를 배출하여 1920~1930년대 독립운동의 기반을 다졌다.¹⁵⁾ 이처럼 1910년대 독립군기지 개척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1920년대 봉오동·청산리전투 등의 독립전쟁, 나아가 1920~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이 전개되었다.

안동 유림의 남만주(서간도) 이주 역시 이같은 신민회 등의 일련의 동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 金大洛과 李相龍 등 안동지역 유지들은 金東三(본명 金肯植)과 金萬植 등을 사전에 현지에 파견하여 답사케 한 뒤, 이주가 추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⁶⁾ 안동 지역사회의 리더 이상룡은 朱鎭洙·柳寅植·李觀植 등을 통해 신민회의 위와 같은 계획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10년 12월 경 協東學校 임원들은 만주로 망명한다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김동삼과 金衡植(김대락의 아들), 李源一을 선발대로 파견하였다.¹⁷⁾ 이 때 주진수·黃萬英(울진 출신)이 이상룡을 찾아가 동의를 받았다. 이상룡·김대락 등 안동유림 문중의 만주 이주과정에서 이들이 큰 역할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¹⁸⁾ 이러한 배경에서 김동삼은 이상룡과 김대락의 지도와 후원을 바탕으로 줄곧 만주지역 민족운동의 선두에 서서 독립운동과 이주민들의 자치, 행정, 교육운동 등을 주도하였던 것이다.

특히 白下 김대락은 중국(만주) 이주와 망명에 대하여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만삭의 임부인 孫婦와 손녀를 대동한 것

15) 신용하, 위의 논문, 100-119쪽.

16) 김희곤, 2007, 『안동 사람들의 항일투쟁』, 지식산업사, 512쪽.

17) 김희곤, 2007, 위의 책, 513쪽.

18) 조동걸, 1989, 앞의 논문, 249~250쪽.

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경술국치로 조국이 '적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으므로, 분만할 신생아가 일본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다급히 떠날 이유를 찾기 어렵다.¹⁹⁾ 다만 김대락의 이주·망명 동기는 혁신유림계인 이상룡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그의 이주는 서간도지역이 우리민족의 故土라는 민족의식과 함께 일본이라는 '敵國'의 압제를 피해 그곳으로 간다는 自靖과 은둔의 성격이 짙었던 것이다.²⁰⁾ 이처럼 안동의 혁신유림 계열 인사와 그 관련 인물들이 남만주, 특히 서간도 지역을 이주·망명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만주'에 대한 특유의 역사·민족의식이 있었고, 전국적 조직인 신민회의 독립군기지 건설과 독립전쟁 방략에 적절히 부응한 요인, 이곳이 행정·치안 공백지대가 많았다는 점, 그리고 경북 북부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 등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²¹⁾

Ⅲ. 남만주 신흥강습소의 건립과 안동 유림

1. 안창호의 독립운동 방략과 이상룡·김동삼 등의 실현

한국독립운동사에서 불멸의 자취를 남긴 신흥무관학교는 대외적으로(공식적으로는 '신흥무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는 어려웠지만, 사실상 군사학교적 성격을 띠는 무관학교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²²⁾ 학계에서는 1911년 5월(양력 6월) 남만주(서간도) 유하현 趙家街에 '신흥강습소'를 설립하고, 1912년 6월 통화현 哈泥河로 이전하여 '신흥중학'으로 개칭했으며, 1919

19) 조동걸, 2001, 『白下 金大洛의 망명일기(1911~1913)』, 『한국근현대사의 이상과 형상』, 지식산업사, 197~202쪽.

20) 강윤정, 2009, 『백하 김대락의 현실인식과 민족운동』, 『백범과 민족운동 연구』 7, 백범학술원 참조.

21) 강윤정, 2012, 『신흥무관학교와 안동인』, 44쪽 및 조동걸, 1989, 앞의 논문, 248~249쪽.

22) 이회영은 통화현 합니하에 세운 학교를 '신흥무관학교'라고 했으며, 부인 이은숙 역시 '무관학교로 회고하였다(박성순, 2017, 앞의 논문, 157쪽).

년 5월 3일(음력, 양력 5월 31일) 유하현 孤山子 大肚子로 이전하여 다시 '신흥무관학교'로 개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³⁾ 물론 이밖에도 신흥학교, 新興塾, 大東中學校, 養成中學校, 신흥군관학교 등의 이칭이 알려져 있다.²⁴⁾ 이 같은 다양한 명칭의 혼재는 외국 땅, 그것도 일본과 중국 당국의 감시와 견제를 받으면서 輿地라는 매우 험난한 지역여건에서 비밀리에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했던 이 학교의 비극적 운명을 시사하고 있는 듯 하다. 또한 관련 자료의 인멸과 관계 인물들의 기록 미흡 등으로 진상이 아직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하여간 초창기, 즉 1911년 남만주 신흥강습소의 설립과 운영과정을 검토해볼 때 신민회 창건의 주역이었던 安昌浩가 후일 중국 上海에서 열린 安泰國서거 1주기 추도식에서 신민회에 관해 언급한 부분이 매우 주목된다.

즉 안창호는 1921년 4월 11일 개최된 안태국 1주기 추도식에서 장문의 추도사를 했는데, 이 때 신민회의 宗旨를 첫째 단결력, 둘째 人才力, 셋째 金錢力 등 세가지로 밝혔고, 신민회의 조직과 운영을 위해서도 역시 위의 세가지 사항을 중시했다고 밝혔던 것이다.²⁵⁾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단결력은 조직과 조직운영의 필수요소이며, 인재력은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과 그를 통한 실천 주체의 결집, 금전력은 자금확보와 그것을 위한 일련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안창호는 금전력은 재산가들의 협박이나 유인수단이 아닌 실업 양성, 財源의 토대를 굳건히 하여 大事를 성취할 만한 자본력을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²⁶⁾

23) 조동걸, 2001, 앞의 논문, 210쪽 및 박영석, 1989, 『만주·노령지역의 독립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30·31·63쪽 및 채근식, 1948, 『무장독립운동 秘史』, 대한민국 공보처, 52쪽. 학계에서는 채근식의 저술을 근거로 1919년 5월 3일 '신흥무관학교'로 개칭했다고 하지만, 사실 정확한 논거, 즉 신뢰할 만한 1차 사료를 제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24) 대동중학교와 양성중학교에 대해서는 박환, 2014,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새로운 사료와 졸업생들의 민족운동」참조. 李觀植은 '신흥군관학교'라고 불렀다(이관직, 1985, 「우당 이회영 實記」, 『우당 이회영전』, 을유문화사, 175쪽 ; 박성순, 2017, 앞의 논문, 157쪽에서 재인용).

25) 『故東吾安泰國先生追悼式(안창호선생이 추도사를 述하여)』, 『獨立新聞』 1921.4.21자(3쪽) 및 윤경로, 2012, 앞의 책, 295~297쪽.

특히 안창호의 슬회에 따르면 신민회의 인재양성 방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인재는 어떻게 양성하려 하였는고 곧 단결한 동지가 국내 각 구역을 분담하여 일반 국민에게 교육의 정신을 고취하여 학교의 설립을 장려케 하며, 특별히 각 要地에 중학교를 설립하고 보통의 學科를 教授하는 이외에 軍人의 정신으로 훈련하여 有事之時에는 곧 戰線에 나아가 民軍을 지휘할 만한 자격자를 양성하려 하였으니, 곧 중학교로서 정신상 軍營을 作하려 하였소. 그 외에는 有志한 청년을 망라하여 務實力行의 정신으로 修養을 同盟하여 건전한 인격을 작성케 하려고 국내에 有志한 인사들과 合同하여 기관을 설립하고 진행하여 왔소.”²⁷⁾

안창호의 이같은 구상은 신흥강습소의 설립과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신민회의 주역들은 이미 국내에서 교육구국운동의 일환으로 신식학교를 세우고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적으로 안창호의 역할만 강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창호와 신민회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신흥강습소가 설립 초기부터 小學과 중학교 과정으로 운영되면서 군사교육을 매우 중시하였고, 그 결과 많은 독립군 장교 등 인재를 양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신민회와 안창호의 이러한 방략은 김대라과 이상룡, 김동삼, 허혁 등 경북(안동) 출신 인사들의 이주와 실천으로 구체화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안동 일대에서 거의 1백여 戶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였고, 1911년 일제 당국의 검거사건(안악사건, 105인 사건 등)으로 평안도·황해도·경기지역 신민회원과 유지인사들은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²⁸⁾ 또 혁신유립적 성격을 띠는 이들은 이미 안동지역에서 協東學校 등을 운영한 경험과 실천

26) 위의 『故東吾安泰國先生追悼式(안창호선생이 추도사를 述하여)』 및 윤경로, 위의 책, 298쪽.

27) 『故東吾安泰國先生追悼式(안창호선생이 추도사를 述하여)』, 『獨立新聞』 1921.4.21자(3쪽) (문장은 현대어법에 맞게 필자가 수정함).

28) 조동걸, 1989, 앞의 논문, 252·260쪽.

력, 그리고 중장기적 전망이 있었기 때문이다.²⁹⁾ 특히 이상룡은 大韓協會 安東지회장을 지내면서 교육구국 방략과 함께 무력투쟁 방략을 강구하고 있었다. 대한협회 안동지회는 계몽운동 단체로서는 매우 특이하게도 군사력 양성을 지향했으며, 지회 자체가 군사단체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상룡의 대한협회 안동지회 결성은 두차례의 의병항쟁 이후 결성한 보다 발전된 형태의 국권회복운동 방법론이었던 것이다.³⁰⁾ 또한 협동학교는 3년제 중등학교 과정으로 알려졌다. 김대락과 이상룡, 김동삼, 金衡植 등 협동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계했던 이들이 서간도로 이주하여 신흥강습소와 신흥중학의 설립과 운영에 기여했던 것이다.

안동 유림의 거두로 많은 문중인사를 거느리고 西間島 지역으로의 이주를 주도하였던 김대락은 막상 현지에 도착하여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면서 크게 고민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당초의 굳은 구국의지와 결심을 실천할 것인지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1911년 4월 유하현 삼원보로 이주 후 오랫동안 고국을 그리워하며 많은 번민의 과정을 겪고 있었지만, 이 신흥학교의 건립과정에 참여하고 그 터를 직접 가서 보며 큰 위안을 얻었다.

이상룡은 김대락의 妹夫였는데, 역시 이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크게 기여하였다. 김대락의 일기에 그의 행적이 무려 51회나 언급되고 있다. 특히 1911년 11월 21일자 일기(西征錄)에서 이상룡이 “학교 모임을 운영하는데, 사람을 모으려고 애썼으나 채우지 못하게 되자 또 장차 학교 곁으로 들어가 지낼거라고 한다”³¹⁾라고 기록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29) 조동걸은 柳寅植·김동삼·이상룡·김대락 등을 革新儒林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위정척사운동에 대한 성찰을 통해 그 한계를 절감하고, 교육과 산업진흥, 실력양성 등을 통한 준비론과 구국(애국)계몽운동을 지향하는 혁신적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한다(상세한 내용은 조동걸, 1989, 238~243쪽 참조).

30) 강운정, 2012, 『신흥무관학교와 안동인』, 42~43쪽 참조. 조동걸은 金道鉉 의병장의 패전 이후 사상적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조동걸, 1989, 앞의 논문, 241쪽).

31) “相龍爲校會 敦速名, 不得遽 而又將入居學宮之傍云耳”(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2011, 『국역 백하일기』, 175~176쪽).

김대락은 1912년 3월 2일 일기에서 哈泥河 신흥강습소 학교 설립작업에 참여한 과정과 그 소회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는 아침 먹은 뒤에 哈泥河로 가서 金永根 집에서 점심을 먹고, 여러 사람과 함께 학교 터를 영건하였다. 강산이 밝으면서 수려하고 지세가 평탄하고도 넓어서 정녕 儒者 학도들이 들어앉아 수양할 곳으로 합당하다. 이로 하여 마음 속 회포가 상쾌해졌는데, 이는 이 경내에 들어와 차음 느끼는 것이다(吾則飯後去哈泥河 午饒于金永根家 與諸員等營建校基 江山明麗 地勢平衍 政合儒紳粧修之所 襟期爽豁 盖入此境 初見也).”³²⁾

이처럼 김대락의 이 학교에 대한 기대와 애착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그 때문인지 설립 초기 이 학교의 교장으로 김대락이 추대되었지만, 그는 고령과 명분을 내세워 정중히 사양하였다.³³⁾ 대신 초대 교장은 그와 막역한 사이였던 이상룡이 맡은 것으로 판단된다.³⁴⁾

김대락 등 안동 川前문중은 1912년 6월 신흥강습소 합니하 분교의 낙성식을 전후하여 합니하로 이사하였다.³⁵⁾ 따라서 김대락의 집안 조카이자 실 무총책임 김동삼은 직접 간접으로 이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1916년 결성된 扶民團의 부단장, 부민단이 확대개편된 扶民會의 議事部長을 맡아 서간도지역 민족운동과 교민들의 자치운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³⁶⁾ 특히 부민단은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신흥강습소의 개편을 통해 문무겸전의 인재를 양성하는 일과 한인 동포들이 산재하는 곳곳에 학교를 세워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³⁷⁾ 더욱이 부민단의 본부가 합니하에 있었기 때문에³⁸⁾

32)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2011, 위의 책, 227쪽.

33) 김형식, 『辭學校長書』·『再辭學校長書』, 『先考遺稿』(김형식 사위 李泰衡 소장 원고본), 92~94쪽; 조동걸, 2001, 앞의 논문, 198쪽에서 재인용.

34) 강윤정, 2012, 앞의 논문, 48쪽.

35)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2013, 『경북독립운동사』 4, 110쪽.

36) 조동걸은 경학사가 해체되고 부민단이 결성된 시기를 1916년 경으로 파악하였다(조동걸, 2000, 앞의 논문, 424쪽).

신흥강습소의 합니하 개교와 운영에 김동삼이 관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특히 신흥강습소의 졸업생들이 이 학교를 졸업한 뒤에 결성한 신흥학우단에도 참여하여 이 학교 졸업생들의 진로지도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金承學은 신흥학우단의 초대 간부진 가운데 金東三이 총무부장을 맡았다고 하였는데, 아쉽게도 신흥학우단에서 발간한 『신흥교우(학우)보』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³⁹⁾ 그러나 후일 신흥학우단이 중심이 된 백서농장의 장주가 김동삼이었기 때문에 연계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김대락은 합니하 신흥강습소의 낙성식에 관한 생생한 기록을 남겼다. 그는 1912년 6월 7일 자 일기에서 그때의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 날은 바로 새 학교 건물이 낙성하는 날이다. 모인 사람이 100여인이고, 학생으로 졸업하는 사람이 7인이었는데, 모두 상품을 받았다. 취지서와 축사를 연설하고 唱歌하고 만세를 불렀다. 이는 그 회의 일 중에서 進化한 절차였다. 구경한 청나라 사람(淸人)이 또한 수십인이었는데, 모두 부러워하며 탄복하는 기색이 있었다. 저녁이 다 가도록 질탕하게 보내니, 한번 통쾌하게 적적함을 깨뜨린 자리였다.”⁴⁰⁾

또 1910년대 초 경학사와 신흥강습소 설립, 운영의 주체였던 석주 이상룡은 후일 신흥강습소와 관련된 여러 편의 시문을 남겼다. 그는 「만주에서 겪은 일(滿洲紀事)」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신흥숙’을 언급하였다. 여기에서 이 학교의 기숙학교적 성격과 졸업생 숫자(養得獬過半千, 과반 1천명), 그리고 학교에 대한 큰 관심과 자부심을 표현했다. 특히 이 시의 끝에 “신해년(1911년) 여름 경학사를 결성하고 신흥강습소를 열어 군사(군대)·학술과목으로 청년

37)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2013, 『경북독립운동사』 4, 107·109쪽.

38)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위의 책, 109~110쪽.

39)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위의 책, 115쪽.

40)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2011, 『국역 백하일기』, 256쪽.

들을 교련하였다(辛亥夏 結耕學社 設新興講習所 以軍師學術 教練青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이 학교가 군사학교적 성격을 띤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¹⁾ 또 ‘신흥강습소에 주다(與新興講習所) - 기미년(1919년)’이라는 글은 1919년 3월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상룡은 여전히 ‘신흥강습소’라고 부르고 있어 당시 명칭을 알 수 있다.⁴²⁾

이상룡은 또한 『유하현 지사에게 바치는 정문(呈柳河縣知事文)』에서 “신흥학교로 말씀드리자면 이는 저희들의 中等學堂입니다. (중략) 前代 청나라 宣統年間에 이 학교를 제1구의 鄒家街에 설립하였고, 2년 후에 通化縣 哈泥河로 이전하였다가, 을(1919년-필자) 봄에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3구의 孤山子로 옮겨 왔습니다.”라고 했다. 이는 이 학교가 중학교 과정으로 설립·운영되었던 사실을 나타낸다.⁴³⁾

한편 이상룡은 “처음으로 鄒家街에 小學堂을 설립하였다. 또 합니하 거의 깊숙한 구역 하나를 점거하여 중학교를 설립하고 군사과를 부설하여 일본 병서를 몰래 구하다가 가르쳤다.”⁴⁴⁾라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일반적으로 ‘신흥무관학교’로 불렸던 것처럼 이 학교가 군사과목을 교육하는 군사학교적 성격을 띤 것은 확실하다.⁴⁵⁾

1919년 3·1운동 직후 입학생이 증가하여 奉天省 柳河縣 孤山子 大肚子에 신축된 후기 신흥학교에 대한 기록은 최근 자료집으로 발간된 김경천의 회고형식의 일기 『擎天兒日錄』을 통해 그 실상의 일단을 잘 파악할 수 있다.

41)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2008, 『국역 석주유고』 상, 경인문화사, 215~216쪽.

42)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2008, 위의 책, 368~369쪽.

43)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2008, 위의 책, 555쪽.

44)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2008, 『先府君 遺事』, 『국역 석주유고』(하), 603쪽.

45) “만주에 주재하던 한인들이 일제히 유하현의 孤山子에 모여서 血戰준비를 의논하고, 南廷燮과 宋鍾根을 공에게 보내어서 이 일에 대해 아뢰었다(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2008, 『이상룡』 행장, 『국역 석주유고』(하), 158쪽)” 라는 내용은 ‘무관학교’임을 시사한다.

2. 양기탁 편지를 통해 본 독립군 기지와 한인 사회의 한 단면

1916년 남만주 柳河縣 孤山子와 通化縣 哈泥河 일대 독립군 기지 개척운동과 독립운동 현장을 두루 둘러본 梁起鐸(1871~1938)은 안창호(1878~1938)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곳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그는 남만주 서간도 일대를 독립운동기지의 모범적 사례로 간주하며, 이 지역을 기반으로 더욱 활기찬 독립운동을 전개하려는 구상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안창호와 협의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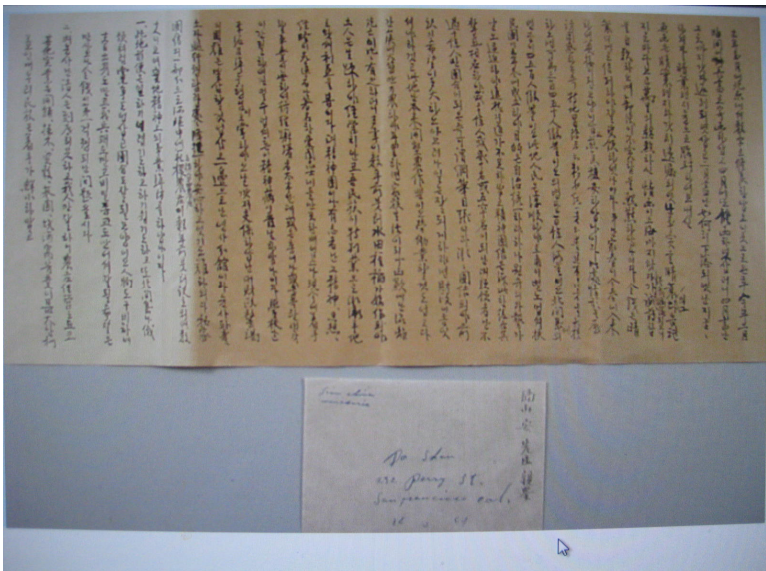
특히 이 편지는 1916년에 남만주 유하현 고산자(후기 신흥무관학교 소재지)에 머물고 있던 우탁(禹卓, 본명 양기탁)이 장차 남만주 유하·통화 일대 韓人들의 거주지에 독립군기지를 더욱 강화하고, 한인 교민들의 산업진흥을 통해서 일련의 구국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현지의 사정을 미주지역의 대한인국민회 회장 안창호에게 알리는 내용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원문 내용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부 어투와 문장을 수정하고 용어 해설을 괄호속에 넣었다.

“去年(작년) 11월(至月)에 北京에서 數字로 修侯(편지를 써서 안부를 물음-필자)하얏고 이곳으로 온 후 (중략) 此處 情形은 歷訪周察(두루 살펴봄)하온 즉 특지 모험자와 정신 純一者와 보통유지자를 收撥하오면 가위 이백 사오십인 가량이오 義兵團 백여인 가량이오 북간도에 의병단이 사오백인 가량이오 此地 人民은 순순하야 圭角(말이나 행동이 남과 맞지 않음) 별로 없어 扶民團이 작년 겨울에 성립하야 목적은 자치통일하러 하나 원수의 외세가 날로 꺾박하야 進軌의 道가 부족하얏고

정신단결은 渡此(이곳으로 건너옴) 후 각기 勢氣相應하야 혹 이십여인 혹 기십명 혹 오륙명이 되난대 두령자난 불과 십여인만 단합이 되온 즉 가위 綱舉目張(사물의 핵심을 파악하면 그밖의 것은 이에 따라 해결됨)이라 점점 단결되야 前頭의 희망이 多大하오. 아므려나 일이 잘 되게 하라하면 재정이 좀 있어야 하겠고, 此地는 본래 개간농작 뿐이오 勞動業 할 것도 없고 다만 山峽에 화치(火田) 力農하야 年豊하면 가족생활이 되나 흉년에는 遊離死亡이 比比有之(흔히 있는 일)하더니 다행히 수년전부터 水田種稻가 시작되야

土人是 생소하여 경영치 않고 吾民族이 특별업으로 점점 平地로 와서 이익을 봅니다. 저 정신단이나 有志者는 그 정신·사상·經略이 선진자나 저명한 애국지사네들만 못한 배 없으나, 現今에 착수할 사업이 無하여 방황 주저자 태반인데, 혹은 충이나 혹은 폭탄 생각이 간절하여 견딜 수 없어 흔히 정신병이 발생하합니다.

학교난 李洙·呂準 두 형님이 주장하여 오늘까지 支保하압난대 재정정갈의 곤란은 말삼할 것 없삽고 일변으로난 (일본) 領事分館이라 巡查 파출소라 巡行偵探라 처치 봉기하여 안심하고 있기도 難하외다. 비밀단결의 일부분으로 深峽중에 範模농장명칭 백서농장이 수년전부터 설립되어 수십인이 모여 실지 정신상의 사업준비를 하합니다.”⁴⁶⁾



〈사진 1〉 양기탁이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와 봉투(1916.10.17(양력 11.12, 일요일))
- 출처: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2017년 8월 15일 검색)

46) 이 편지는 洋紙에 양면으로 묵서 되어있다. 安昌浩선생 미망인 수잔 안여사가 독립기념관에 기증한 島山자료 속에 포함되어 있다. 상세한 내용은 『독립근기지 설립에 관한 편지(자료소개)』, 『월간 독립기념관』 1990년 1월호, 16쪽 참조. 이 편지는 현재 독립기념관 제5 전시관에 전시되고 있다(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2017년 8월 15일 검색).

주목되는 사실은 양기탁이 1916년 경 서간도 일대에서 굳은 의지를 갖고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인물들을 약 250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의병단, 즉 무장한 독립군세력을 100여명, 그리고 북간도 지역(현재 중국 연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군의 규모를 5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총이나 폭탄 생각이 간절하여 정신병이 날 지경이라는 현지 분위기 보고는 신흥강습소 등 서간도 일대 독립운동 세력의 강한 항일무장투쟁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이 편지는 유하·통화현 일대 서간도 지역 독립운동 세력이 북간도(연변)나 ‘俄領(러시아 연해주지역)처럼 당쟁(분파싸움)도 없고 단합이 잘되며 장교(사관) 출신과 의병계열 무장투쟁 세력이 많아 독립운동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이 무렵 이 지역에서 耕學社와 扶民團, 신흥강습소 등을 주도하였던 이상룡은 초대 부민단장을 지낸 동지 性山 許爨(본명 許薰, 1851~1940)에게 1914년에 보낸 편지에서 “<黨派>라는 두 글자에 이르러서는 오직 입에서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곧 모름지기 마음에 두지도 말아야 합니다.”라고 하며 화합과 ‘대동단합’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⁴⁷⁾

또 중국인이 하지 못하는 벼농사가 잘되어 농장경영과 농업관련 실업 진흥에 유리하니 미주동포들을 이주시키거나 토지를 매입하여 실업경영 혹은 농장경영을 추진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1910년대 후반 서간도 지역(특히 압록강의 중국쪽 지류인 渾江과 松花江 상류, 遼河 상류 일대) 독립군기지 개척, 건설운동과 무장독립운동, 실업경영 등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현장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지 농업경영의 실상이나 중국 官憲, 현지 중국인들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세밀하게 고찰하지 않고,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고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에 제시해 본다.

47)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2008, 『허성산 혁에게 답하다(答許性山樞)』, 『국역 석주유고』 상, 320쪽.

“一. 此地 형편은 일하기 어렵기도 하고, 하기 쉽기도 하고 또 북간도나 俄領처럼 당쟁도 업삽고 단합도 잘될 모양이오. 인물도 구비하여 士官출신도 만코 義兵패도 만코 비밀종교도 만어서 잘 될 희망은 만사오나 金錢이 제일 걱정되난 문제올시다. (밑줄은 필자)

二. 벼농사난 淸人은 도저히 못하고 我人만 잘 하니 농장경영도 좋고 기타 실업은 開浦採木, 매곡, 삼포, 소주와(燒酒窩)등 업이 최대한 이익인데 우리 민족은 착수가 鮮少하얏고,

三. 교회형편은 처처 잘 되나 교인의 성질을 융화하여 軍國民이 될 가망은 꽤히 업사오나 이왕부터 苦誠으로 일 보시든 安長老 동식씨가 정신을 발휘하온 즉 차차 잘 되겠삼고

四. 吾濟(우리네) 경력상으로 추측컨대 사만리 해외에서 군사나 군기나 있다가로 소니 전투선에 능히 도달하여 한 가지 臨陣충돌할 수 업사오나 美洲에 잇난 동포의 몸이 되어 생각컨댄 此地로 이주하거나 혹 不來 하드래도 實業 혹 農場을 此地에 설립함이 可하되다. 아모던지 此處에 몇 곳 농토를 永買혹 權買하게되면 자득이익의 반분 혹 삼분 일을 의무로 공익에 보조 하얏스면 조곷삼나이다.

거기서 이왕에 俄領 蜂密山의 농작을 경영한 것 실패되고, 그 후에도 勸業同盟團이 內地의 경영도 잘못될줄 已知하오나 이곳은 田土一耕에 稻作하면 보통 15석(내지 일인 斗의 배됨)이나 되오니 농장경기가 萬無 실패하겠삼나이다.

(하략) 음력 丙辰 시월 십칠일 禹弟

지금 사용하는 이름 禹卓 배상

中華 奉天省 柳河縣 孤山子街 廣增德寶號內 鄭武處⁴⁸⁾

당시 중국 등 국내외에서 활약하던 독립운동가들은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가명을 많이 사용했다. 자기 신분이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으면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가 흔했다. 이 편지의 발신인 성명은 禹卓으로 되어있으나, 본명은 梁起鐸이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 편지가 발송된 유하현 孤山子에는 1919년에 신홍학교(신홍무관학교)가 세워져 많은 독립군을 양성, 배출하였다. 당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자

48) 『독립군기지 설립에 관한 편지(자료소개)』, 『월간 독립기념관』 1990년 1월호, 17쪽.

료가 아닐 수 없다.

3. 신흥무관학교 생도 모집과 중국인 동지의 남만주 한인 독립운동 인식

신흥무관학교의 생도모집은 대개 세 가지 경로로 이루어졌다. 즉 ① 현지 서간도지역 한인 청년 모집, ② 安東縣 거점 경유 모집(孟輔淳, 張世澹[일명 張炯] 등 활동), ③ 국내 청년의 입교 등이다.⁴⁹⁾ 그런데 주목되는 사실은 ②, ③의 경우에 경북(안동)출신 인사들이 후원 연락거점이나 연락기관으로 다수 연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제 당국의 정보에 따르면 안동출신으로는 李承和(동후면)·裴昇煥(풍산면)·權在壽(풍서면)·金斗七(안동군, 사실은 경북 청도) 등이 파악된다.⁵⁰⁾

특히 청도군 출신인 金斗七(본명 金哲濟)은 1911년, 불과 19세 때 안동 李相龍 가문의 남만주 이주시 함께 망명하였다. 그가 이상룡과 어떤 연고가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그는 通化縣 哈尼河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요녕성 桓仁縣 南荒溝에 거주하며 한인 대중을 상대로 항일독립운동과 계몽운동을 주도하였다.⁵¹⁾ 그는 1920년 전후 시기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세력과 연계하여 경북 안동 등지를 왕래하며 한인 청년들을 모집하였다.⁵²⁾ 이들을 신흥학교에 입교시켜 군사교육을 실시한 뒤, 국내외에 파견하여 군자금 모집과 각종 독립운동을 도모하는 등 1920년 전후 시기에 국내외에서 무장독립전쟁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했던 것이다.⁵³⁾

김두철의 신흥무관학교 생도 모집 관련 사실은 1920년 일본 경찰이 적발했던 소위 ‘무관학교 학생모집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다. 김두철은 경북 산군 해평면이 본적지인 崔載華와 함께 金鍾燁(본적 경남 동래군 기장면, 서울

49) 박성순, 2017, 앞의 논문, 158~173쪽.

50) 박성순, 2017, 위의 논문, 178~179쪽.

51) 김양, 2001, 『압록강 유역의 조선민족과 반일투쟁』, 瀋陽 : 료녕민족출판사, 579쪽.

52) 경상북도 경찰부(류시중·박병원·김희곤 역주), 2010(원본은 1934), 『무관학교 학생 모집 사건』, 『국역 고등경찰요사』, 선인, 368~370쪽.

53) 위와 같음.

거주에게 무관학교 입교를 권유하여 삼원포 소재 군정부(서로군정서) 산하 무관학교인 신흥학교 제4기생으로 입교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특히 김종엽은 동지 權元河와 함께 신의주를 건너 중국 안동현으로 간 뒤, 다시 신흥학교로 갔다. 그는 1919년 8월 제4기생으로 입학하여 이듬해 1월 하순 이 학교를 졸업하고 1920년 2월 서울로 돌아갔다. 그 뒤 김종엽은 上海로 건너가 大同團 총재로서 이 조직을 이끌고 있던 金嘉鎭이 발행한 독립운동 자금 모집 수령증을 소지하여 동지들을 포섭하고, 독립운동 자금 모집에 앞장서던 중 1920년 9월 경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다.⁵⁴⁾

중요한 사실은 일경의 조사에 따르면 최재화·김종엽·권원하 등은 ‘조선독립전쟁’이 있게 되면 이에 참가할 준비로 실제 군사교육을 받았다는 점이다.⁵⁵⁾ 이상룡 등 안동 출신인사들의 인맥이 신흥무관학교 생도모집 등으로 연결되고, 실제로 독립전쟁에 대비하는 일련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과 저력을 바탕으로 1918년 말에서 이듬해 초에 이시영·이상룡·김동삼·허혁 등 만주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중심이 된 ‘대한독립선언서(일명 戊午독립선언서)’가 발표되고, 남만주 柳下縣 三源浦와 通化縣 金斗伙 洛 한인 거주지역에서 만주 최초의 3·1운동이 1919년 3월 12일 전개될 수 있었다.⁵⁶⁾ 중국 연변지역(북간도)의 龍井에서 3·1운동이 일어난 것은 하루 뒤인 3월 13일이었다. 때문에 연변지역에서는 이를 용정 ‘3·13반일(시위)운동’으로 부르며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일제 치하의 식민지 조선 서울과 평양에서 3월 1일 3·1운동의 첫 봉화가 일어났지만, 3·1운동이 전국 각지로 전파·확산된 것이 대부분 3월 하순부터 4월에 이르는 시기였던 사실을 감안하면 남만주 서간도 지역의 3·1운동 확산은 실로 놀라운 일이

54) 위와 같음.

55) 류시중·박병원·김희곤 역주, 2010, 위의 책, 369쪽. 김두철의 신흥무관학교 생도모집 등에 대해서는 장세운, 2016, 『조선혁명군정부 외교부장 金斗七 1주기 제문』, 『한국근현대사연구』 76, 한국근현대사학회 참조.

56) 오세창, 1992, 『만주 한인의 3·1독립운동』, 『박영석교수 화갑기념 한민족독립운동사논총』, 탐구당, 546쪽. 만주지역 3·1운동에 대해서는 오세창의 위 논문 참조.

아닐 수 없다.⁵⁷⁾

한편 1932~1933년 남만주에서 조선혁명군 독립군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항일전쟁을 전개하였던 遼寧民衆自衛軍 사령관 王彤軒(중국인)은 1910~20년대 남만주 지역에서 매우 활기차게 독립전쟁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이세영·김동삼 등 신흥학교·白西農庄 등 관련 인물들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매우 감동적으로 서술하여 주목된다.

“당시에 본 한국인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낙심하는 일 없이, 줄곧 일본을 멸망시키고 조국을 되찾겠다는 굳은 신념에 불타 있었다. 앞을 가는 사람이 넘어지면 뒤따르던 사람이 앞으로 나가서,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자세로, 목숨을 바쳐서 싸우고 용감하게 매진하며, 조국광복의 대계를 확립시키고 추진했다. 실로 東亞大陸에 있어 민족운동의 선봉이었다.

둘이켜 보건대 한국민족은 일찍부터 세계대세를 살피서 나라의 형세가 위태로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李天民(본명 이세영, 신흥무관학교 교장 역임-필자)·김창환(신흥교관-필자)·柳東說·李青天(신흥교관-필자)·金一松(김동삼-필자)·李敦化·李鍾乾(신흥졸업생-필자)·申八均(신흥교관-필자)·玄益哲(신흥졸업생-필자)·梁荷山·梁世鳳·金學奎(신흥졸업생-필자)·高爾(而)虛 등 수많은 동지들이 中韓 두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많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비록 三矢協定の 체결로 활동에 많은 제약과 속박이 따랐지만, 中韓의 민중은 일치단결해서 산업을 권장하고 교육을 진흥시키며, 삼민주의를 주의로 삼고 한국독립을 목표로 삼아 분투하였다.”⁵⁸⁾

57) 유하·통화현의 이웃인 桓仁縣에서는 국내 3·1운동 소식을 전해들은 한인 교민 1천여 명이 환인현 각지의 한인 마을을 중심으로,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항일시위운동 등 대규모 집회를 거행하였다. 특히 최대규모 시위가 夾皮溝에서 전개되었는데, 단장 黃永瑞와 신흥학교 출신인 김두철 등의 주도로 500여 명의 남녀노소 한인들이 결집하여 항일구호를 제창하며 시위행진을 벌였다(桓仁縣民族事務委員會 朝鮮族志編纂小組 編, 1988, 『桓仁縣朝鮮族志』(내부자료), 本溪, 38쪽 및 김양, 2001, 『압록강 유역의 조선민족과 반일투쟁』, 瀋陽: 룡녕민족출판사, 579~580쪽, 환인현 등 남만주지역 3·1운동에 대해서는 오세창, 1992, 앞의 논문 참조).

58) 王彤軒, 『소중한 편지 한 통』, 『韓民』 제1권 5기(1941.6);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별책4(94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7년 11월 3일).

위의 편지에서 김동삼 외에 신흥무관학교 관계자를 7명이나 언급하고 있는 점은 이 학교의 만주 무장독립운동사에서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IV.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졸업생·교관·김구·일제의 인식

1. 졸업생 金學奎의 회고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서 東明學校 등 남만주 여러 학교의 교사를 거쳐 1930년대 전반기 조선혁명군 참모장의 중책을 맡았으며, 이후 한국광복군 제3지대장을 역임한 金學奎는 '신흥학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랑스럽게 회고하였다.⁵⁹⁾

“耕學社는 일면 밭을 갈고(一面耕) 일면 공부하여(一面學), 인재를 배양하고 실력을 양성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하였다. 경학사는 이것을 본 뜻(宗旨)으로 하여 '군관학교'를 개설하였으니, 이름을 '신흥학교'라 하였다. 국내의 우수 청년과 동북(만주) 韓僑의 英俊子弟들을 모집하여 군사인재를 가르치고 길러냈으니, 이것이 바로 (중국)동북 韓人 무장운동의 기초사업이었다.⁶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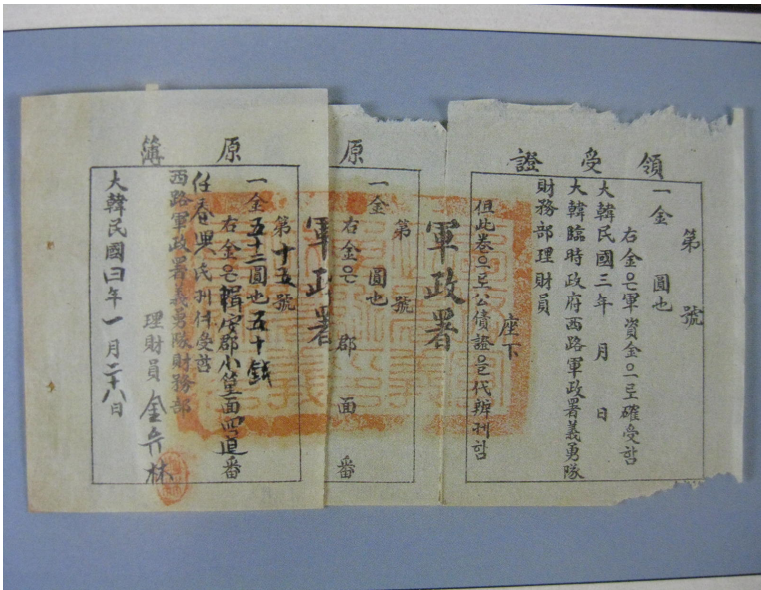
韓族會는 3.1운동 이전, 한국인이 조직한 동북의 유일한 혁명단체였다. 3.1운동 발발 시, 한족회의 지위와 임무는 보다 중요해 졌다. 3.1운동 발발 후, 한족회는 정치적 역할을 발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군사활동도 전개해야 했다. 이에 따라 한족회는 하나의 군사기구를 설립하고, 大韓西路軍政署라 명명하였다. 산하에 2개 聯隊를 설치하고 연대 아래 6개의 大隊를 설치하였다. 군정서의 중요간부는 모두 구한국정부 군대의 고급군관 및 외국군관학교 출신의 韓民이었으며, 초급간부는 모두 新興學友團 단원 혹은 다른 군사학교를 졸업한 국민이었다. 그리고 군정서의 병사들은 모두 18세 이상 40세

59) 김학규는 후일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여 安斗熙의 김구 암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아 큰 고초를 겪었는데, 그는 후일 제출한 이력서에서 '1919년 만주 신흥학교 졸업'이라고 기록하였다(金炳基 소장).

60) 金學奎, 『三十年來韓國革命運動在中國東北』, 『光復』 제1권 2기(1941년 3월 발행,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7년 영인본), 19쪽.

이하의 현지 한국교민으로서 3개월 이상 室外에서 군사훈련을 받았다. 신흥 학교는 본교와 분교 4곳에 모두 2,000여 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이들은 군정서의 간부후보였다. 한국 韓僑가 거주하는 마을에서는 밤낮 없이 군사교련을 실시하여 긴장감이 감돌았고, 마치 大戰 前夜와 같은 분위기였다.”⁶¹⁾

이처럼 김학규는 신흥학교의 학생들이 전성기 때인 1919년 3·1운동 직후에는 본교와 분교 4곳을 합쳐 모두 2,000여명에 달했다고 회고하였다. 또 이들이 서로군정서의 간부후보였으며, 학교와 부근의 한인 마을들이 매우 사기도 높고, 마치 큰 독립전쟁 전야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사진 2〉 이상룡·김동삼 등이 활약한 서로군정서의 군자금 모집 영수증 (1921.1.26, 독립기념관 소장)

61) 金學奎, 『三十年來韓國革命運動在中國東北(續)』, 『光復』 제1권 3기(1941년 5월 발행, 독립기념관 1987년 영인본), 21~22쪽.

2. 교관 김경천의 신흥무관학교와 이상룡·김동삼에 대한 인식

1919년 6월 독립운동의 큰 뜻을 품고 서간도로 이주, 망명하여 그해 7월부터 신흥학교의 교관으로 활동했던 金擎天(본명 金光瑞)은 자신이 일본 육사 출신으로서 엘리트라는 강한 자부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가 보기에 당시 서간도지역이나 만주,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한 다수의 독립운동 지도자들이나 독립운동가들의 수준이나 사고방식, 독립운동의 자세, 일반 한인동포들의 생활 및 의식수준 등은 매우 미흡한 것이었다.⁶²⁾ 특히 신흥무관학교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했지만,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도 그리 좋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韓族會의 간부인 이상룡과 김동삼, 南一湖 등은 그래도 더불어 일을 상의할 만 한 인물들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이상룡에 대해서는 나이가 60세이지만 우매하지 않고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될 만하다고 평가하였다.⁶³⁾

김경천은 당시 이 학교를 ‘서간도 무관학교’, ‘고산자무관학교’, 혹은 그냥 ‘무관학교’라고 불렀다. 그의 관찰에 따르면 이 학교가 1919년 3월까지, 즉 국내에서 3·1운동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보통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독립선언’ 이후로 보통교육을 전면폐지하고, 군사학 교육을 시작했다고 한다.⁶⁴⁾ 하지만 이는 자신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싶은 심정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부터 이 학교가 군사교육을 강조하고 있었던 사실은 명백하다. 어쨌든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평가되고 있던 일본군의 장교로 복무했던 그로서는 당시 신흥학교의 열악한 시설과 낙후된 장비, 그리고 부족한 물자와 교육 기자재, 상대적으로 느슨한 운영 및 조직체계와 분파적 행태를 보이는 주변인들을 목격하며 상당히 실망하기도 하였다.⁶⁵⁾

당시 고산자무관학교는 중국인의 건물을 임대하여 교사로 사용하고 있었

62) 김경천, 2012, 『擎天兒日錄 - 연해주지역 항일독립운동가 김경천장군의 일기』, 학교재, 74~76쪽.

63) 김경천, 2012, 위의 책, 79~80쪽.

64) 김경천, 2012, 위의 책, 76쪽.

65) 위와 같음.

고, 3·1운동 이후 국내외에서 몰려드는 청년들을 더 수용하기 위해 교사를 신축하였다고 한다. 특히 국내에서 독립선언을 한 이래 일본인의 압박 때문에 국경을 넘어오는 청년들과 서간도나 만주 지역에서 입학한 학생들을 대폭 수용하였는데, 1919년 7월 경 학생 숫자는 200여명에 달했다고 한다.⁶⁶⁾ 이들의 드높은 기상과 의지는 가상하다고 할 만 했지만, 세계 강국의 하나인 일본을 대적하는 데는 너무도 수가 적다고 할 수 밖에 없었다. 또 남만주 지역 한인 동포들의 경제적 여건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이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없었다. 때문에 당초 웅대한 포부를 갖고 이 학교 교관으로 왔던 김경천은 “남만주에 있는 우리 힘이 원래 약하다. 그러므로 여기서 더 대대적으로 일을 벌이는 것은 불가능하다.”⁶⁷⁾ 하고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재정부족과 물자, 인력, 정보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이 학교 구성원들의 원대한 목적, 즉 조국의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독립전쟁의 전개는 당장 실현하기 어려웠다. 여기에 더하여 중국 마적의 습격 등 현지土匪 세력의 약탈과 납치 등은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 1919년 여름에만 두차례나 마적들이 밤중에 학교를 습격하여 학생과 교사 몇명을 납치해가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마적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군사교육은 계획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한다.⁶⁸⁾ 또한 중국 지방정부 당국의 신흥무관학교 등 한인단체들의 군사양성과 군대 동원, 이를 통한 군사활동 동향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어려움을 초래했다. 예를 들면 유하현 당국은 1919년 한인들이 사는 마을과 이 학교에 관리를 파견하여 수색활동을 벌이는 등 군사교육 및 그와 관련된 군사활동을 전개하지나 않나하고 감시하였던 것이다.⁶⁹⁾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흥무관학교에 참가하여 활동하고 있

66) 위와 같음.

67) 위와 같음.

68) 김경천, 2012, 위의 책, 77쪽.

69)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2008, 『국역 석주유고』 상, 554~555쪽.

던 ‘신홍인’들의 독립전쟁에 대한 투지와 열정은 막을 수 없었다. 1919년 가을 무렵 이 학교의 여러 유지들은 “나뭇잎이 떨어지면 군사행동을 하기가 불리하니 어서 무기를 준비하여 가지고 압록강을 한번 넘는 것이 소원”이라는 강한 의지를 불태웠다.⁷⁰⁾ 하지만 결정적으로 아쉬운 것은 일본군경을 상대로 싸울 무기가 별로 없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신홍무관학교에서는 김경천과 申八均 양인을 무기구입 위원으로 선정하여 러시아 니콜리스크로 파견, 무기를 구입하여 운반토록 하였다.⁷¹⁾ 그러나 이쉽게도 이들은 러시아와 연해주, 남·북만주의 복잡한 정세와 사정으로 인하여 끝내 무기를 구입하여 복귀할 수는 없었다.

신홍무관학교는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서도 독립전쟁론에 입각한 항일무장투쟁의 기간인재를 배출하는 요람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이러한 군사인재의 양성이 매우 중요하였다. 줄기차게 독립운동의 기간요원을 양성하던 이 학교는 결국 1920년 7월 경 한인 독립운동 세력 말살을 목적으로 북상한 일본 關東軍의 침입과 탄압으로 다수의 교관과 학생들이 북상하여 북간도(중국 연변)지역이나 북만주로 옮겨갈 수 밖에 없었다. 사실상 이 학교가 폐교된 것이다. 하지만 이후 남북만주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군사학교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종류의 무관학교가 설립되어 군사인재 양성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3.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와 일제 탄압당국의 인식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김구는 후일 『백범일지』에서 ‘신홍학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단히 회고하였다.

“정세로 말하면 東北 3성 방면에 우리 독립군이 벌써 자취를 감추었을 터이나, 신홍학교 시절 이후 3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오히려 김일성(金一擘

70) 김경천, 2012, 앞의 책, 79쪽.

71) 위와 같음.

: 북한 김일성을 지칭) 등 무장부대가 의연히 산악지대에 의거하여 엄존하고 있다. (중략) 이렇게 현상유지를 하는 정세라, 관내 임시정부 방면과의 연락은 극히 곤란하게 되었다.”⁷²⁾

만주지역에서 독립군의 활동 등 항일무장투쟁이 시작된 것은 ‘신흥학교’부터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임시정부 계열 인사들 역시 이 학교를 만주 무장투쟁의 핵심적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한편 조선총독부 警務局은 이 학교에 대해 “大正3년(1914년·필자) 奉天省 通化縣 합니하에 排日鮮人이 義兵 교양의 목적으로 설립한 신흥학교”로 파악하고 있어 흥미를 끈다.⁷³⁾ 이 내용은 이순신 장군의 13대 宗孫 李鍾玉이 신흥학교에 입학한 사실을 추적한 것을 반영한 것인데, ‘의병교양을 목적으로 지목한 것은 이 학교가 군사학교라는 사실을 정확히 간파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⁷⁴⁾ 한편 경상북도 경찰부는 이 학교를 신흥무관학교, 무관학교, 신흥학교 등으로 파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⁷⁵⁾

V. 신흥무관학교와 김대락·이상룡·김동삼의 활동

1. 김대락 일기를 통해본 김동삼과 신흥강습소

신흥강습소(신흥학교)는 1911년 5월 14일(양력 6월 22일) 중국 길림성 柳河縣 鄒家街 마을의 창고에서 개교식을 가졌다.⁷⁶⁾ 당초 ‘신흥학교’로 설립되었다

72) 김구(도진순 주해), 1998, 『백범일지』, 돌베개출판사, 315쪽.

73) 조선총독부 경무국, 1934, 『國外ニ於ケル容疑朝鮮人名簿』, 京城, 283쪽.

74) 이순신가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이정현, 2016.6, 『충무공 중부가 증언하는 항일역사』, 『월간 조선』 435호, 305~315쪽 참조.

75) 경상북도 경찰부(류시중·박병원·김희곤 역주), 2010, 앞의 책, 402·408·409·457쪽.

76)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2011, 『국역 백하일기』, 85~86쪽 ; 한시준, 2011, 『신흥무관학교와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0, 8쪽.

가, 1912년 6월 7일(양력 7월20일) 通化縣 哈泥河로 확장 이전하였다.⁷⁷⁾ ‘신홍강습소(독립군 양성 무관학교)’로 불리기도 하였다. 수년전 『신홍교우보』의 발굴을 통해 기존의 통설을 수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학교의 교장에 이천민(윤기섭 등), 敎成대장에 지청천, 교관에 오광선·신팔균·이범석·김경천 등이 임명되어 활약하였고, 1920년 8월까지 2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⁷⁸⁾ 매일 14시간의 훈련을 실시하였다. 본과 장교 교육과정은 3년제였지만, 단기의 속성과정이 있었다. 하사관반은 3개월, 장교반은 6개월, 특별반은 1개월로 기한을 정하고 학과교육 1할, 교련 2할, 민족정신 5할, 건설 2할의 비율로 훈련을 배정하였다.⁷⁹⁾ 정신교육에 큰 비중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졸업생은 후에 신홍학우단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하였다.

김동삼의 원래 이름은 金肯植 또는 宗植이라고 했다. 號는 一松. 하지만 1913년 3월부터 이름을 중국의 동북 3성 또는 東三省을 의미하는 ‘東三’으로 개명하였다.⁸⁰⁾ 그의 아우 纘植 역시 ‘東滿’으로 개명하였다. 중국동북(만주) 지방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개명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1912~1913년 사이 김동삼이 유하현 삼원보 일대를 드나들며 분주히 독립운동에 매진하는 모습은 그의 族叔 김대락의 일기에 散見되고 있다. 그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912년 5월 27일 김대락의 집에서 金字植·金字衡·金衡八과 함께 자다.⁸¹⁾

7월 10일 북쪽 산골짜기로부터 수백리를 돌아서 김대락의 집에
 갑(유하현 삼원보). 산과 강의 형승에 대해 김대락에게
 설명하니, 김대락은 큰 호기심을 보이며 가서 보고 읊

77)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2011, 앞의 책, 256쪽.

78) 박환, 2004, 『신홍무관학교』, 『한국독립운동사사건(운동·단체편)』 5, 독립기념관, 358~361쪽. 이 학교 출신으로 교관을 지낸 元秉常은 졸업생이 약 10년간 3,500여명에 달했다고 회고했다(원병상, 1984, 『신홍무관학교』, 『독립운동사자료집』 10집, 고려서림, 32쪽).

79) 서중석, 2001, 『신홍무관학교와 망명자들』, 116쪽.

80) 김희근, 2011, 『안동 독립운동 인물사건』, 82쪽

81)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2011, 앞의 책, 253~254쪽.

겨살고 싶은 심경을 토로하였다.⁸²⁾

11월 10일 김대락의 종손 金成魯, 족친 金世林, 李純·李源一과 함께 김대락의 집에서 자다. 이들과 함께 당시 있었던 통화현 감옥 죄수들의 폭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⁸³⁾

1913년 1월 3일 김대락의 집에 문안차 가다.⁸⁴⁾

3월 9일 崔基定·白龍憲·金容升·金東堦 등 黃澗사람들과 함께 김대락의 집에서 점심을 먹다.⁸⁵⁾

3월 19일 朱鑣洙·黃萬英과 함께 김대락의 집에서 점심을 먹다.⁸⁶⁾

5월 19일 김대락의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떠나다.⁸⁷⁾

8월 23일 김대락의 집에서 점심을 먹다.⁸⁸⁾

9월 5일 황만영과 함께 김대락의 집에 가다.⁸⁹⁾

11월 2일 김대락의 조카 金圭植과 함께 김대락의 집에 가서 김대락의 조모 제사에 동참하다.⁹⁰⁾

12월 6일 懷仁縣(현재 桓仁縣)에서 김대락의 집에 들러 이원일과 함께 점심을 먹고 떠났다.⁹¹⁾

12월 28일 김대락의 집에서 자다.⁹²⁾

12월 29일 鄭寅建과 함께 김대락의 집에서 점심을 먹다.⁹³⁾

82)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2011, 위의 책, 266쪽. 이때 김동삼이 유하현 삼원보(남산촌)를 둘러보고 나서 김대락에게 설명한 듯 하다. 당시 김대락은 통화현 합니하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김대락은 1913년 2월 19일에 유하현 삼원보 남산촌으로 이사하여 원로로서 각종 민족운동 및 생활문제에 관한 자문 등에 응하고 있었다(강운정, 2011, 『백하 김대락의 생애와 『백하일기』』, 위의 책, 7~8쪽).

83)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2011, 『국역 백하일기』, 300쪽.

84)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2011, 위의 책, 337쪽.

85) 위의 책, 374쪽.

86) 위의 책, 377쪽.

87) 위의 책, 398쪽.

88) 위의 책, 457쪽.

89) 위의 책, 460쪽.

90) 위의 책, 470쪽.

91) 위의 책, 462쪽.

92) 위의 책, 487쪽.

93) 위의 책, 488쪽.

신흥강습소는 비록 유하현 삼원보 鄒家街와 통화현 哈泥河 산골짜기에 있었지만, 이 학교 구성원들은 세계 각지의 한인 민족운동세력과 긴밀히 연계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한 사례로는 1913년 발간된 『신흥교우보』 제2호의 해외 전파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재미(하와이) 교포들이 1907년 창간하여 발행하던 『신한국보』의 개명 신문 『국민보』는 1913년 10월 22일자에 ‘신흥교우보의 出世’ 기사를 상세히 보도했던 것이다.⁹⁴⁾

조동걸은 추가가에 있던 학교가 합니하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합니하에 중등과정의 학교를 신설한 것으로 해석하였다.⁹⁵⁾ 앞으로 좀더 연구해봐야 하겠지만,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통상 현재까지 ‘신흥무관학교’로 많이 알려져 왔으나, 주로 ‘신흥강습소’로 불렸던 사실이 『석주유고』를 통해 확인되었다.

2. 1910년대~1920년대 초 이상룡·김동삼의 관계와 만주 독립운동의 독자성 문제

이상룡과 김동삼 관계의 일단을 검토하기 위해 이상룡의 『석주유고』에 실린 김동삼 관련 漢詩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석에 일송의 편지를 보다(除夕見一松書)
 서쪽 성 제야 전등 밝은데(西城除夜電燈明)
 종이 축포 소리에 오만가지 잡념(紙礮聲中萬念橫)
 한번 뒤흔들어 마구니 세상 깨뜨리기 어렵고(一震難壞魔世界)
 천번 외침에도 잠든 정신 깨우지 못하누나(千呼不起睡精神)
 죽고 삶이 또한 크니 백성이 무슨 죄냐(死生亦大民奚罪)
 안팎이 연합하면 당(黨) 이룰 수 있는 것(內外相聯黨可成)

94) 이에 대해서는 장세운, 2010, 『新興校友團의 기관지 《新興校友報》(자료소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6 참조.

95) 김대락의 일기(백하일기)에 따르면 합니하에 새로운 학교를 세워 개교하였지만, 추가가의 학교는 그대로 건재하여 김대락의 손자 正魯가 종전대로 기숙사 생활을 했다고 한다. 따라서 합니하 교사의 신축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추가가 소재 신흥학교가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조동걸, 2000, 앞의 논문, 423~424쪽).

우편관리 와서 전한 동지의 편지(郵吏來傳同志信)

화반(樺磐)에 일이 있으니 속히 회정(回程)하라네(樺磐有事速回程)⁹⁶⁾

제석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선달 그믐날을 말한다. 일명 ‘除夜’라고도 한다. 사람들은 대체로 연말연시는 주변을 정리하고 조용히 보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상룡은 한해의 마지막 날에도 여전히 분주하다, 남만주지역 독립운동을 위해 자신을 부르는 곳이면 불철주야, 가릴 여유가 없다.

아마도 1920년 전후 시기에 김동삼이 樺甸, 磐石縣에서 화급한 일이 있어 급히 이상룡에게 와달라는 편지를 보낸 것 같다. 틀림없이 남만주 지역 독립운동이나 교민들의 생활 등에 관련된 일이었을 것이다.

김동삼은 1921년 이상룡의 초청으로 중국 延邊지역의 延吉를 방문하여 여러 동지들과 함께 독립운동의 방략에 대해 의논하였다. 이 모임에서는 “上海에서 벗어나자고 결의”하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었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노선을 비판하고, 무장투쟁 노선에 입각한 독립운동 방법을 결의한 것을 의미한다.⁹⁷⁾ 특이 이 무렵 이상룡은 朴容萬에게 보내는 글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반드시 먼저 얼마간이라도 내적 역량이 있고 난 뒤에 외교를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만일 내적 역량이 텅 비어 아무것도 없으면서 오로지 외교에만 의지한다면 아마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한갓 쓸데없는 생각으로 허비할 것이라고 봅니다.”⁹⁸⁾라고 하며 李承晩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일각의 외교론을 비판하였다.

1921년 上海에서 열리는 국민대표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김동삼은 동분서주했다. 그러한 상황을 이상룡의 『석주유고』를 통해 추적해볼 수 있다. 즉 1921년 2월 9일 北京으로 가기 위해 吉林을 출발하여 長春으로 향하였으나, 차료가 불편하여 며칠 뒤에 다시 길림으로 돌아갔다.⁹⁹⁾ 같은 해 3월 하순

96)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2008, 『국역 석주유고』 상, 244쪽.

97)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2008, 『이상룡이 박용만에게 보내는 글』, 위의 책, 424쪽.

98) 위와 같음.

99)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2008, 『국역 석주유고』 하, 66~67쪽.

北京의 이상룡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진로 등 시국에 관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으며,¹⁰⁰⁾ 또한 上海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에 서로군정서의 李震山·金衡植·裴天澤·金鐵 등과 함께 참가하여 임시정부의 진로에 대해 논하였다.¹⁰¹⁾

봉오동·청산리전투와 관련하여 이상룡의 행장에는 이청천이 다섯개 단체의 병력을 통솔하여 적과 청산리에서 만나 적의 장교 수백명을 죽였고, 다시 봉오동에서 접전하여 왜적을 살상함이 심히 많았다고 쓰여있다. 이에 따라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日兵 한 사람이 중국병 열사람을 당해낼 수 있고, 韓人 군사 한명이 일병 열명을 당해낼 수 있다.”는 말이 떠돌았다고 한다.¹⁰²⁾ 물론 이는 과장된 言說이라고 할 수 있지만, 1920년 6월과 10월의 봉오동·청산리전투에서의 승전 사실이 만주지역 곳곳에 전파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당시 현지 동포사회의 분위기와 한민족 독립전쟁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1920년 겨울 김동삼은 吉林에 체류하고 있는 이상룡과 협의하여 額穆에 독립군 부대를 주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김동삼은 동지 李洙과 함께 寧安으로 가서 독립군 병사들이 주둔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았다.¹⁰³⁾ 이 해 겨울 러시아로 북상했다가 천신만고 끝에 이듬해 중반에 다시 만주로 돌아온 독립군 병사들은 서로군정서가 額穆으로 이동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寧安縣으로부터 조금씩 병영으로 돌아왔다. 서로군정서에서는 이들을 모두 農兵(둔전병)으로 편입하고 黃學秀에게 군사교련업무를 맡게 하였다.¹⁰⁴⁾

1920년 여름부터 일본군(관동군)이 남만주지역에 대거 출동하여 독립운동 세력을 대대적으로 탄압하자 독립군 장병들은 이를 피해 북상하는 등 큰 시련을 겪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 이후 사방으로 흩어졌던 독립군 장병들은

100) 위의 책, 90쪽.

101) 위의 책, 160쪽.

102) 위의 책, 159쪽.

103) 위의 책, 159쪽.

104) 위의 책, 160쪽.

呂準·李洙 등이 수십명의 청년들을 거느리고 액목현의 屯庄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에 모여들었던 것이다. 특히 이상룡은 南相復·崔明洙 등을 시켜 남만주 각지 한인동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효유하도록 한 결과 상당수의 청장년들이 모여들게 되었다.¹⁰⁵⁾ 이에 따라 1921년 겨울 이상룡 등은 액목현 黃崗에 들어가서 軍政조직을 개설하고, 주요 간부의 결원을 선출하며 補任하는 일을 의논하였다. 서로군정서는 이후 농업경영 등을 통해 한인교민들의 생활안정과 독립운동 기지 구축, 독립군 장병들의 모집과 군사조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¹⁰⁶⁾

한편, 1923년 1월의 『독립신문』은 1920년대 초반 김동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통의부의 중요職任으로 추천되었으나, 취임하지 않고 거부했다고 보도하였다.¹⁰⁷⁾ 물론 이 때는 上海에서 국민대표회의가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만주 독립운동 주도층 사이의 미묘한 견제와 비판, 그리고 협력이라는 다층적 논리를 고려해서였겠지만, 땅이 넓고 교통이 불편하며 치안상태도 좋지 않은 만주(중국동북)지역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만주 독립운동 세력은 1920년대 중반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권위가 추락하면서 이제 한민족 독립운동의 중심지는 중국 동북지역(만주)이고, 주도권도 이 지역 단체와 관련 인물들이 장악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특히 김동삼은 이시영·이회영 등 기호지역 출신 인사들은 물론, 김대락·이상룡·허혁 등 경북지역(혁신)유림 인사 및 서간도지역 한인 이주민들과 고락을 함께 하며 한인 자치 및 독립운동에 매진하였다. 일찍이 경학사·부민단·신흥학교·백서농장·韓族會·서로군정서·대한통의부 등 1910년대와 1920년대 초 남만주 서간도지역의 독립군기지 개척과 건설, 독립운

105) 위의 책, 608쪽.

106) 위의 책, 608쪽. 이상룡은 1921년 黃崗에서 군정서를 조직했다고 하나, 학계에서는 1919년 11월 기존의 '군정부'를 '서로군정서'로 개칭했다고 보고 있다(박환, 2004, 『서로군정서』, 『한국독립운동사사건(운동·단체편)』 5, 독립기념관, 82쪽).

107) 『民情을 소개코져 軍政署 대표 金東三氏談』, 『독립신문』 1923년 1월 17일자 기사.

동 단체와 조직을 통한 무장독립운동 준비와 실천에 크게 기여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 무렵의 임시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남다를 수 밖에 없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향후 별도로 고찰하기로 한다.

3. 김동삼의 사상적 경향과 대중교

1) '김동삼의 사상분류 계보'

전라북도 경찰부가 1923년 작성한 국외 독립운동단체 및 주요 인물을 사상별로 분류한 도표를 보면, 이 도표는 독립운동가들을 '순독립파'·'공산파'·'온건파' 등으로 분류하고, 소련·중국 지역의 독립운동단체의 이름과 주요 인물들을 수록하였다. 순독립파는 상해의 임시정부(노백린), 서간도의 대한통의부(김동삼), 공산파로는 북경의 의열단(김원봉), 上海의 고려공산당(여운형), 寧安의 赤旗團(최웅렬), 시베리아 이만의 고려혁명군(이중집),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혁명위원회(김하석), 온건파로는 북경의 군사통일회(박용만), 상해의 고려공산당(왕삼덕), 블라디보스토크의 상해파 고려공산당(이동휘) 등을 들고 있다.¹⁰⁸⁾

물론 이러한 분류는 민족운동 탄압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다만 이 분류에 따른다면 김동삼은 '순독립파', 즉 강경한 민족주의계열 이념의 독립운동가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겠다.

2) 1910년대 이상룡·김동삼과 대중교

일제 당국의 대중교에 대한 철저한 감시·통제로 인한 기록의 인멸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단군 숭배와 대중교 정신을 배경으로 활동했다. 특히 경상도 출신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대표적 인물이 밀양의 윤세복·윤세용 형제, 울산의 남형우와 최현배, 부산의 김두봉과 김갑(金甲)을 들

108) 『在外 독립운동가 사상분류도』, 전라북도 경찰부, 1923(日文, 독립기념관 소장); 독립기념관의 '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 검색(검색일: 2014년 5월 18일).

수 있다. 또한 의령의 안희제와 이극로, 함안의 이중건과 이연건, 김서종·김두중 형제를 비롯하여, 김천의 정열모 등이 모두 ‘단군정신’으로 독립운동 전선에서 활동했다고 해도 될 정도였다.¹⁰⁹⁾

더구나 안동 지역 독립운동가들에게 단군의 의미는 남달랐다. 이상룡이나 김동삼, 이동하나 유인식·김동택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상룡은 『大東歷史』(1913년) 등 역사관련 저술에서 강한 민족주의 및 대종교 성향을 드러낸 바 있는데, 이 책은 신흥무관학교의 교재로 사용되었다고 한다.¹¹⁰⁾ 退溪 李滉의 후손인 李源台의 저술 『倍達族 形勢疆域圖』 역시 이 학교의 교재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있다.¹¹¹⁾ 또 김정식이나 김정익은 물론 사회주의자인 권오설과 권오상, 안기성 등도 대종교와 관련하여 독립운동에 헌신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¹¹²⁾ 이상룡이나 허혁, 김동삼 등이 만주에서 1919년 3월 초순(일설에는 1918년 말)에 발표된 ‘대한독립선언서(속칭 戊午독립선언서)’에 대표자 이름으로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김동삼은 일본이 중국 동북지방(만주)을 침략한 ‘9·18사변(일명 만주사변)’ 직후 모종의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하얼빈에 잠입했다가 韓人 밀정의 밀고로 1931년 10월 12일 일본영사관 경찰에 체포되어 국내에 압송되었다.¹¹³⁾ 그가 경성형무소에 투옥되었을 때 일제 당국이 감시를 위해 촬영한 사진을 보면 그의 고초와 고뇌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3년 사이에 흑독한 옥고를 치르면서 급격히 노쇠한 모습은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기에 충분하다(아래 사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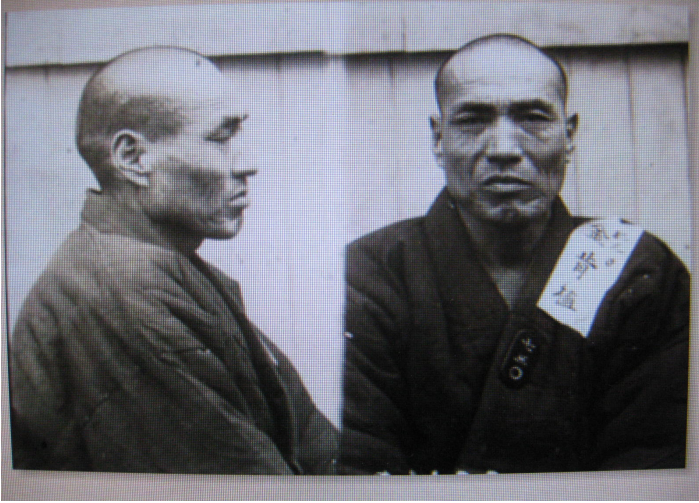
109) 김동환, 2011, 「단군을 배경으로 한 독립운동가 - 경상도,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仙道文化』 11,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국학연구원, 131~165쪽.

110) 서중석, 2001,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21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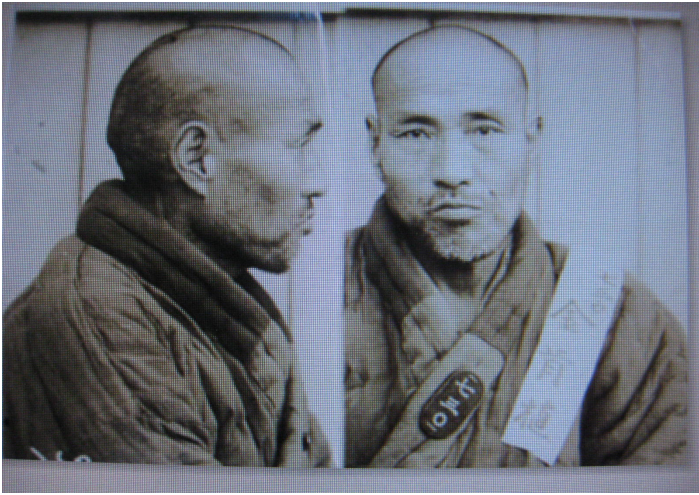
111) 상세한 내용은 박길순, 2003, 「李源台의 생애와 역사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26, 한국근현대사학회 참조.

112) 김동환, 2011, 앞의 논문, 160~165쪽 및 김희곤, 2009, 『만주별 호랑이 김동삼』, 지식산업사, 138쪽.

11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연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인터넷, 검색일: 2017년 11월 3일).



〈사진 3〉 김동삼 : 1933년 3월 경성(마포)형무소



〈사진 4〉 김동삼 : 1936년 1월 경성형무소
-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검색일 2017년 11월 3일)

VI. 맺음말

그동안 학계와 국민 일반이 잘 알지 못했던 『독립신문』 기사를 통해 신민회를 주도했던 안창호의 주도적 기획과 인재양성 전략 방침이 신흥강습소(신흥학교, 신흥무관학교) 설립,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이상룡·김동삼 등 안동출신 혁신유림계 인사들의 안동지역에서의 大韓協會와 協東學校 운영방침 및 경험 등이 구체적 실천으로 결합되어 1910년대 서간도지역의 독립군기지 건설과 무관학교 운영으로 결실을 맺은 사실을 새롭게 확인하였다. 그리고 양기탁이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1916년 경 이 학교와 주변지역 한인 독립운동 세력의 희망찬 모습과 독립군기지 건설, 독립전쟁의 구체적 실천 과정을 검토할 수 있었다. 또 최근 번역 발간된 김대락·이상룡의 일기와 遺稿를 통해 1910년대 남만주 서간도 지역으로 이주하여 신흥강습소와 관련 단체를 이끌며 고군부투하던 안동출신 유림계열 인사들의 활기찬 활동모습을 간취할 수 있었다. 이상룡·김동삼 등과 관련된 주변인물들, 특히 경북(안동) 출신 주도자들이 다양한 경로를 거쳐 국내의를 연계하며 신흥무관학교 생도를 모집한 사례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 학교의 교육생 충원과정과 1910년대 한인 이주사, 한중관계의 한 단면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인 金學奎와 교관 金擎天(金擎天, 본명 金光瑞),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영도하였던 김구 주석·조선총독부 탄압당국의 신흥학교에 대한 인식을 검토한 결과 이 학교가 1919년 전성기 때에는 4곳에 본교와 분교를 두어 2,000여명의 학생이 있었으며, ‘독립전쟁’에 적극 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이제 신흥무관학교와 여러 관련 단체, 한인들의 민족운동을 중국동북지역, 즉 만주 지역사의 차원에서도 다각적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국·일본·한국과 러시아, 미국·영국 등 열강과 국제관계의 교차점으로서의 중국 동북지역·남만주·서간도라는 복합적, 학제적 관점에서의 심층적 연구가 절실한 것이다.

김대락·이상룡·김동삼 등 안동 혁신유립계 인사들의 신흥무관학교와 백서농장 등에서의 활동은 생각보다 깊이 연구가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물론 기본적 사실은 어느 정도 파악, 정리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활동을 전개했는지 상세히 조사하고 그 의미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20년대 중·후반의 통군부나 통의부, 정의부 등에서의 활동과 연계하여 사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 실제로 구체적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충분한 검토, 분석이 있어야 하겠다.

김대락·이상룡·김동삼 등 의성 김씨와 고성 이씨 일족, 안동 일대 집단 이주민들의 신흥무관학교와 서로군정서, 대한통의부 등 남만주 독립운동 주도단체들에 대한 헌신과 기여는 높이 평가되고 길이 기억, 기념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 신흥무관학교는 물론 아직 규명되지 않은 중국 동북지역 각지의 많은 군사학교와 교육기관에 대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하며 교육하고, 후세에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신흥강습소, 신흥중학교, 신흥무관학교 등 이 학교의 설립 초기부터 폐교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현지 및 국내 子弟, 有志人才의 교육과 항일투쟁을 위한 군사인재의 양성 등 그만한 성과를 낸 것도 대단한 것이었다. 하지만 학교 운영이나 구성원들의 활동, 교육내용, 그 성과와 지원체계 등에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다. 한계와 문제점도 있었다. 좀더 엄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한편 김동삼은 2005년 6월에야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이 선정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었다. 독립운동사상의 위상이나 명성에 비해 늦은 경우였다. 그는 직접 총칼을 들고 항일무장투쟁의 최전선에 뛰어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직접, 간접적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하였음은 물론, 만주 이주 한인들의 생활안정과 교육, 자치와 이주행정 등 民政분야에 다방면으로 공헌하였으며, 분열된 독립운동계의 통합과 혁신을 위해 분골쇄신하였다. 그는 확실히 ‘만주벌의 호랑이’로 상징, 은유될 만한 偉人이라고 할 수 있다. 1900년대 초부터 1937년 감옥에서 옥사할 때까지

지 30여년간 초지일관한 고투와 헌신의 민족운동가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그는 1910년대에 서간도지역 주요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직접·간접으로 신흥무관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였다. 그리고 1920년대 이후에는 대한통의부, 정의부, 한국독립당 등에도 주요 간부로 참여하여 남만주 지역 한인 민족운동과 교민들의 자치행정에도 기여하였으며, 독립운동 단체들의 분열을 수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다만 학계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측과 비교하여 신흥무관학교 주도세력의 만주 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이나 독자성 문제 등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부분은 향후 극복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추후 학계의 활발한 연구와 자료발굴, 연구 및 顯彰을 통해 1910년대 남만주지역 독립군기지 건설과 각종 단체, 관련 인물들에 대한 새로운 사실과 해석, 그 의미의 반추, 대중화 및 교육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 차체에 안동 및 구미지역, 서울·경기지역(이회영 일가 등) 집단 이주민들의 동향과 관련한 신흥무관학교 및 그와 관련된 단체, 주도 인물들에 대한 비교연구와 학제적 연구도 필요하다.

1920년대 만주지역 무장투쟁은 물론, 1930년대 남만주 지역에서 크게 활동한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 國民府의 핵심 간부였던 玄益翥과 김학규, 李鍾乾 등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었던 점은 시사하는 바 크다. 또 이 학교 교관을 지냈고 1930년대 초 북만주의 한국독립군을 이끌었던 지청천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여 총사령관을 맡고, 이범석, 김학규 등이 제2·3지대장을 맡은 사실은 이 학교의 독립운동사상의 의미를 반추하게 한다.

추후 신흥무관학교나 안동 유림의 활동과 관련하여 중국 檔案館에 소장된 기록을 발굴, 활용할 수 있다면 새로운 연구가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국 당국이 일본 지도층의 우경화 행보와 관련하여 일제침략사 관련 자료나 기록을 공개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이 분야 연구에 한층 밝은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 학계나 국가 기관, 대학, 연구소 등과의 공동연구나 현지 답사, 자료집 발간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독립군기지 설립에 관한 편지(1916, 10.17, 자료소개), 『월간 독립기념관』 1990년 1월호 및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2017년 8월 15일 검색)
- 『故東吾安泰國先生追悼式(안창호선생이 주도사를 述하여), 『獨立新聞』 1921.4.21자)
- 『民情을 소개코져 軍政署 대표 金東三氏談, 『독립신문』 1923.1.17자
- 『在外 독립운동가 사상분류도』, 전라북도 경찰부, 1923(日文, 독립기념관 소장) ; 독립기념관의 ‘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 검색(검색일 2014년 5월 18일)
- 조선총독부 경무국, 1934, 『國外ニ於ケル容疑朝鮮人名簿』, 京城
- 金學奎, 『三十年來韓國革命運動在中國東北』, 『光復』 제1권 2기(1941년 3월 발행,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7년 영인본)
- 金學奎, 『三十年來韓國革命運動在中國東北(續)』, 『光復』 제1권 3기(1941년 5월 발행,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7년 영인본)
- 김구(도진순 주해), 1998, 『백범일지』, 돌베개
-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2008, 『국역 석주유교』 상·하, 경인문화사
- 경상북도 경찰부(류시중·박병원·김희곤 역주), 2010(원본은 1934), 『국역 고등경찰 요사』, 선인
-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2011, 『국역 백하일기』, 경인문화사
- 김경천, 2012, 『경천아일록 - 연해주지역 항일독립운동가 김경천장군의 일기』, 학교재신용하, 1985, 『신민회의 창건과 그 국권회복운동』, 『한국민족 독립운동사연구』, 을유문화사
- 박영석, 1989, 『만주·노령지역의 독립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박환, 1989, 『만주지역의 신흥무관학교』, 『사학연구』 40, 한국사학회
- 박환, 2014,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새로운 사료와 졸업생들의 민족운동』, 『만주지역 한인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 조동걸, 1989, 『安東儒林의 渡滿經緯와 독립운동 상의 성향』, 『한국민족주의의 성립과 독립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 조동걸, 2000, 『전통명가의 근대적 변용과 독립운동 사례 — 안동 川前문중의 경우』, 『대동문화연구』 3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 조동걸, 2001, 『백하 김대략의 망명일기(1911~1913)』, 『한국근현대사의 이상과 형상』, 지식산업사
- 서중석, 2001,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 김희곤, 2007, 『안동 사람들의 항일투쟁』, 지식산업사
- 김희곤, 2009, 『만주벌 호랑이 김동삼』, 지식산업사
- 장세운, 2010, 『新興校友團의 기관지 《新興校友報》(자료소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 구』 3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장세윤, 2016, 『조선혁명군정부 외교부장 金斗七 1주기 제문』, 『한국근현대사연구』 76, 한국근현대사학회
- 김동환, 2011, 『단군을 배경으로 한 독립운동가 - 경상도,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仙道文化』 11,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국학연구원
- 김주용, 2011, 『《신흥교우보》를 통해 본 신흥무관학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0
- 한시준, 2011, 『신흥무관학교와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0
- 강윤정, 2011, 『백하 김대락의 생애와 『백하일기』』, 『국역 백하일기』,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경인문화사
- 강윤정, 2012, 『신흥무관학교와 안동인』, 『신흥무관학교, 어떤 인물들이 참여했나』 (신흥무관학교 101주년기념 학술회의 발표자료집),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 윤경로, 2012, 『105인사건과 신민회 연구』(개정증보판), 한성대학교 출판부
-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2013, 『경북독립운동사』 4, 대구: 경상북도
- 박성순, 2017, 『1910년대 신흥무관학교 학생모집의 경로와 거점』, 『한국근현대사연구』 82, 한국근현대사학회

투고일 : 2017년 11월 15일, 심사완료일 : 2017년 12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7년 12월 17일

■ Abstract ■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Base
and Sinheung Military School in Southern Manchuria
in the 1910s

Chang, Seyun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By utilizing existing studies and other new materials, this paper examines and analyzes the efforts of the New People's Association(*Sinmin-boe*), an organization set up with the belief that enlightenment can save Korea and lead to Independence, and establish Korean Independence Army Base in Manchuria and its plans to nurture talents. It aims to form relations with the Sinheung Military School and to review the activities of leaders from Andong, Gyeongbuk Province in their organizations centering on the Sinheung school.

Numerous studies on activities and contributions of renowned figures in the Gyeongju Lee clan including Lee, Si-young and Lee, hoe-young and in the West-central region of Korea have not highlighted activists from Andong, Gyeongbuk Province.

This paper narrows the gap. After thorough reviews of articles in *The Independent*, not widely known newspaper to the academia and the public, it was newly found that Sinheung Military School was established and operated in accordance with plans and strategies of Ahn, Chang-ho, one of the leaders in New People's Association, who aimed to nurture talent. Also from Yang, Ki-tak's letter to Ahn, description of the school and independence organization in 1916 was discovered along with detailed processe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Independence Army Base and progress of the Independence War.

Moreover, recently translated and published diary and posthumous works of Kim, Dae-rak and Lee, Sang-yong depict how Confucian scholars with Andong

background preactively engaged in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by leading Sinheung Military School and other organizations after moving into West Jiandao(西間島) of Southern Manchuria in the 1910s. This description helps to detail the history of Korean migration in the 1910s and a new part of Korea-China relations. In addition, this research analyzes the thinkings of Kim, Hak-gyu(the graduate of the school), Kim Gyeong-cheon(the instructor), and Kim Gu(the last premier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re were four schools to accommodate 2,000 students during the school's heyday in 1919 and they were aggressively preparing for the Independence War.

Based on these findings, Sinheung Military School should be understood as a study on the history of Northeastern China, namely within the Manchuria region. Therefore, an in-depth study from complex and scholastic perspectives is urgently needed to view Northeastern China-South Manchuria-West Jiandao as an intersec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between China, Japan, Korea and powers such as Russia, the US, and the UK.

Key words : New People's Association, Southern Manchuria, Korean Independence Army Base, Confucian scholars in Andong, Kim Dae-rak, Lee Sang-yong, Kim Dong-sam, Sinheung Military School, Independence War

